

강진구 교수의 “죽음교육으로서의 ‘버킷리스트’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논찬

장유정 (헷볼트리니티 강사)

연구자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들 중 죽음의 문제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죽음에 대해 ‘외면’, ‘부정’, 그리고 ‘회피’ 등의 태도를 가지며 죽음을 말하는 것이 금기사항이 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죽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 각당복지재단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죽음준비 지도자 과정’이나, 2012년부터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웰다잉 지도자 양성과 웰다잉 교육 확대지원 프로그램 등이 그 일환이라 볼 수 있겠다. 연구자에 따르면 이러한 죽음교육은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가진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즉 죽음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죽음의 본질에 대한 연구 중심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이다. 둘째는 후회하지 않는 삶의 마무리로써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것이다. 즉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아의식과 정체성 그리고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돕는 일이다. 셋째는 곧 다가 올 상실로부터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상실로부터 회복을 가능케 하는 애도의 조절 등에 대한 교육이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는 웰빙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죽음을 이와 연계시킴으로 ‘웰다잉(Well-Dying)교육’이 제시되면서 죽음교육에 대한 새로운 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삶을 삶답게 사는 웰빙의 완성은 웰다잉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죽음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며 손쉽게 죽음교육의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시행할 수 있고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버킷리스트(Bucket List)’를 제시하고 있다. 할리우드의 영화 <버킷 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Bucket List>(2007)를 통해 최근 유행되고 있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일이 죽음교육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목표로 이 논문은 그 연구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연구자에 따르면 죽음교육으로서의 버킷리스트 프로그램은 두려움 없는 죽음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중요한 일’을 적어봄으로써 죽음을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나의 생애 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촉진시켜주는 도움자임을 깨닫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는 버킷리스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삶과 죽음을 통합하는 죽음교육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제시한다.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있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버킷리스트는 후회하지 않는 삶 속에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자는 이에 더 나아가 죽음교육으로서의 버킷리스트의 또 다른 역할을 노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으로 죽음교육의 대상을 확장시켜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을 죽음으로 이끄는 첫 번째 요인이 자살임을 제시하면서 청소년에게 삶에 대한 사랑과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시켜주는 죽음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버킷리스트의 죽음교육으로써의 효과에 대하여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느끼는 행복도가 더 높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버킷리스트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본 연구는 고금을 넘어 인간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면서 노인들의 죽음의 문제는 더욱 큰 관심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웰빙사회에 웰다잉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버킷리스트 작성이라는 흥미로운 방법을 통한 죽음교육으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삶을 돌아보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연구자의 접근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적용할만하다. 또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죽음교육을 노인 뿐 아니라 전 연령, 특히 청소년으로 확장하는데 있어서 버킷리스트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것도 높이 평가할만하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논찬자로서 이 논문에 대한 질문 혹은 아쉬움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자는 버킷리스트 프로그램이 죽음교육의 세 가지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두려움 없는 죽음교육과 삶과 죽음을 통합하는 죽음교육으로서의 버킷리스트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버킷리스트가 죽음교육의 첫 번째 목표—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와 두 번째 목표—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일—를 성취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듯하지만, 버킷리스트가 죽음교육의 세 번째 목표—다가올 상실로부터 고통을 완화시키는 일—에는 어떻게 부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2) 버킷리스트 프로그램이 죽음교육으로써 삶과 죽음을 통합하는 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연구자는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 남은 삶을 가치있고 의미있게 살도록 만드는 원동력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남은 삶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생각해보며 선택하도록 돕는 버킷리스트는 삶과 죽음을 통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자의 주장은 한 가지 질문을 가져온다. 만약 죽음을 단지 ‘소멸’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버킷리스트 작성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포스트모던 주의와 니힐리즘의 영향으로 어떤 가치도 찾지 못하고 죽음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버킷리스트 프로그램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3) 노인 대상에서 자살의 비율이 높은 청소년에게로 죽음교육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주장과 관련하여 버킷리스트의 활용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 시대의 청소년기의 특징, 특히 자살을 시도하거나 생각해 본적이 있는 청소년들의 죽음과 삶에 대한 인식 연구 등을 근거로한 버킷리스트의 활용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연구자는 버킷리스트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서울여대 학생 중 버킷리스트를 작성했거나 이전에 작성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과의 행복도 비교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버킷리스트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웰빙과 웰다잉이 깊은 관계가 있다면, 죽음이 임박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도의 비교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버킷리스트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연구자의 가정 하에

서울여대의 자료도 버킷리스트의 죽음교육으로서의 효과를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으나, 버킷리스트의 효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죽음이 임박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연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앞으로의 더 깊은 연구를 기대해 본다.

논찬을 마치며 논찬자가 이 연구를 통해 죽음교육의 필요성 및 버킷리스트의 활용과 그 효과 등에 관하여 새롭게 배우고 얻은 지식에 대해서 연구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